전남 중장기 건축정책 '탄소중립·안전강화' 초점

도. 국가정책 부합·지역 특색 살린 2차 계획 착수 고령 인구 증가 대비·청년 유출 방지 공간 조성 등

전남도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 기 건축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담길 '제 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1차 녹 색건축물 조성에 집중한데 이어 이번 2차 계획은 탄소중립 도시 건설 및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전남도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계획

이다. 전남지역 특성과 여건 변화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 건축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

올해로 만료되는 제1차 건축기본계획 (2017~2021년)은 '건축으로 빚는 생기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비전하에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친환경 녹 색건축 확대를 위한 사업을 펼쳤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전남지역 156개소에 총 548억 원을 들여 오래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 율을 강화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특히 환경친화적 옥상녹화 사업으로 에 너지 절감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 레 제정,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사업 추진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복둥지사업을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독립유공자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 주거생 활을 지원했다.

도는 또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남도 건 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축자산 후보 311개소를 선정,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고, 한옥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이번 두 번째 건축기본계획은 국가 건축 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건축공간연 구원과 지역 현안에 밝고 전문가 네트워크 를 갖춘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나선 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도민에게 더욱 공감되고 실행력이 높은 전남만의 건

축정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및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공간 조성 ▲빈집 · 노후 건축물 정비 ▲혁 신도시와 원도시의 상생・균형 발전을 위 한 도시건축통합설계 전남의 도시문제 해 결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농가인구감소와 지역 환경문제 해 소를 위한 친환경 축사 및 스마트팜 도입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안 전 및 에너지 성능 향상 ▲지속적인 건축 자산의 보전과 활용 활성화 ▲우수한 해양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향상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군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 뷰, 도민 건축 인식조사, 전문가 토론 및 시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

정영수전남도건축개발과장은 "탄소중 립 도시 건설, 지역 건축안전 강화, 지역 공공건축 혁신 등 국가 건축정책에 부합하 면서도 전남만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한 건 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코로나 직격'전남 자영업자 폐업률 19.8%

박종원 도의원 "지역경제 중심축, 지원정책 뒤따라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전남지역 자 영업자들이 어느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 당·담양1)은 7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 역경제의 축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

전남에서는 지난해 4만7,405개 업체 (중소기업 4,819곳, 자영업자 4만 2,586곳)가 창업했고, 2만9,240개 업 체(중소기업 1,905곳, 자영업자 2만 7,335곳)가 폐업했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전남이 24.8%로, 전국 26%보다 1.2%p 낮았



다. 특히 전남 지역 중소기업 폐 업 률 은 1.7%로, 전국 9.5%보다 7.8%p낮은반

폐 업 률 은 13.7%보다 6.1%p 높은 것으로 집계됐 다. 폐업의 주 요인은 매출감소로 파악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 업과 자영업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 한 심정이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 업자는 지역경제 중심축인 만큼 더 좋

은 정책을 만들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어 "지난 7월 도의회 지역경제 활 성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 는 만큼 특위와도 협력해 코로나19 극 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

이에 대해 이건섭 도 일자리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응 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업과 영 업, 폐업, 재기'등 생애 단계별 지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업소상공인 에 대한 브릿지 보증을 지원해 채무상 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소상공인 사 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7일 오후 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첫 성과물인 경형SUV 캐스 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생훈 기자

"GGM 1호차'캐스퍼'관심 가져달라"

의원들은 "GGM은 대한민국 1호 상생

형지역일자리이자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

이다"며 "시민 성원과 관심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

대적 사명감을 갖고 설립됐다"고 말했

특히 "노사의 아름다운 양보와 협력

으로 탄생한 GGM이 첫발을 떼기 시작

했다"며 "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

시의회, 대학생 정치참여 이끈다 조선대와 모의의회 운영 업무협약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지역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여

광주시의회는 7일 "광주형일자리 자동 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

광주시의회는 7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 장, 공진성 교수 등 10명이 참석했다. 서 조선대학교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 공장의 첫 성과물인 경형 스포츠유틸리 티차(SUV) 캐스퍼에 관심을 가져달라"

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시작 6년만에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1호차인 캐스퍼가 오는 15일 출

시된다"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사

민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은 물론,

광주시와 정부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

고 호소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 장, 조석호 부의장, 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의회운영위원장과 조선대 민영돈 총장, 김 봉철 대외협력처장,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협약 주요내용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 시의회 체험 기회 제공 등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

협약 체결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본회의 장에서 모의의회 개최, 우수 참가자 의장

력사항이 담겼다.

일자리 기업이 생산한 차 '캐스퍼'에 많 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황애란 기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호 지역상생형

서도 자랑스럽게 첫 차를 생산한다. 걸 음마를 떼기 시작한 GGM의 첫 차 캐스

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

또 "GGM에서 생산된 차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달 라"며 "향후 생산 차량의 다변화와 친환

경 차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 표창 등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선대는 학생들에 게 시의회 체험 기회 제공, 모의의회 안건 발굴 및 공유 등 모의의회 진행 전반을 총 괄한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대학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멘텀으 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도, 추석 앞두고 지방도 특별정비

17일까지 위임국도·시군도 등 환경점검도

전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쾌적한 귀성 길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도로 정비에 나

와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위임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으 로, 도로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와 안전점 검을 함께 실시한다.

트홀, 배수로 불량 등이 확인되면 즉시 조 치한다.

특히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귀성객 이번 정비는 17일까지 도로관리사업소 과 방문객에게 시야 방해 요소인 도로변 불법 적치물, 입간판 등을 제거하고, 무성 한 초화류에 대한 제초작업도 실시할 계획

전남도는 도로 정비와 함께 연휴 기간 쾌적하고 안전한 귀성길 제공을 위해 포 중 지방도 건설 현장 상시 연락망을 운영

할 방침이다. 도로 공사 구간 주변에는 교 통안전시설 및 야간 식별 가능한 점멸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강 화했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한 수방 자재를 상시 비축해 전남을 방문하는 귀성 객의 차량 통행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 해 전남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이미지 를 심어주고,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 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